

올 세계경제 3%대 성장하며 회복세 보일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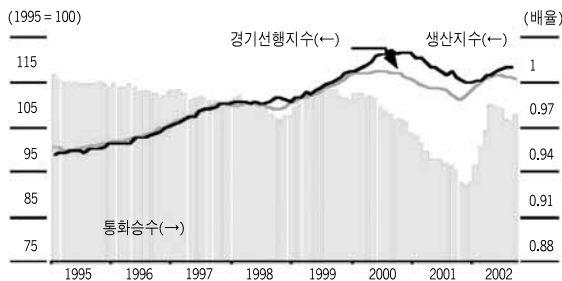
세계경제는 올해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며 3%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OECD 산업생산지수로 본 세계경제는 2001년 11월을 기점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상승속도는 다소 둔화된 상황이지만, 경기동행성을 나타내는 산업생산지수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회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하반기로 접어들면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변수를 극복해야 할 듯하다. 특히 이라크와 미국의 전쟁 가능성이 높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번 특집에서는 2003년도 세계경제의 지표를 전망하고자 한다.



주 : 통화승수는 (총통화지수)/(통화지수)로 계산
자료 : OECD

▲ OECD 경기관련 지수

경기선행 지표 악화와 디플레이션 우려

지난해까지 세계경기의 회복세를 뒷받침한 것은 9·11 테러 이후 감행된 각국의 금융완화 정책이었다. 즉, 소비확대 유도정책이 세계경기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것이다.

완화정책은 최근 IT 관련 주가가 붕괴되면서 급격히 위축된 통화승수를 끌어올리는 데도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IT 버블 붕괴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증권시장에서는 10조 달러가 넘는 시장가치가 증발했다. 따라서 효과를 전적으로 과감한 금융완화 정책에서 찾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듯하다.

이미 독일에서는 주식과 부동산의 동반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따라 은행의 대출이 억제되기 시작했다. 금융경색은 기업의 부도상태로 이어질 수 있어 일본형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도 제조업 부문의 물가하락 압력이 나타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자금경색을 동반한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선진국권 1%대 성장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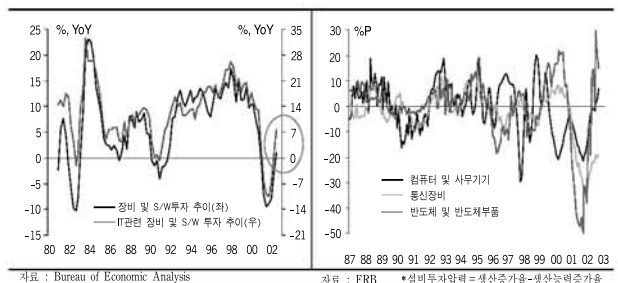
올해 선진국권의 경우 1%대 성장률에 그쳐 3년 연속으로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경기버팀목의 역할을 해왔던 민간소비의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으나, 하반기 이후 기업투자가 되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올해의 완만한 회복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급락은 없을 듯하다. 또한 건설한 증가세를 보이던 민간소비는 지나친 가계부채 부담과 낮은 저축률 때문에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잠재성장률 수준에 미달하는 2.5% 내외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경제는 수출확대에 힘입어 지난해 3/4분기부터 연 3%대 성장률을 기록하며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물가하락과 금융경색이 계속되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이 진행되고 있어 성장세는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수익이 다소 호전된 기업들의 설비투자 의욕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부실기업의 퇴출을 다소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고이즈미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도 일시적으로 경기를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 중 일본경제는 본격적인 경기확장 국면을 맞이하기 이전에 또 다시 경기가 악화될 가능성도 높다.

EU는 수출이 다소 회복될 듯하지만 1.4%의 부진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기업들과 소비자들의 경기 기대감이 살아나지 않고 있어 회복 속도가 늦어질 전망이다. 다만, 산업생산과 기업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재고조정이 활발히 이뤄져 향후 성장세 회복에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 Bureau of Economic Analysis

자료 : FRB *설비투자압력=생산증가율-생산능력증가율

▲ 회복기미 보이고 있는 설비투자 IT 부문별 설비투자압력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1.6% 정도의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

개도국권 경기회복세 양극화

개도국권의 경우 중국, 동남아, 인도, 러시아, 동구권 등이 견실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남미, 중동지역이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수출 및 외국인 투자증가, 내수확대 등으로 올해 7%대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동안 성장을 견인해오던 수출과 재정지출의 기여도가 약간 둔화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성장률은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동남아의 경우 수출호조와 소비회복에 힘입어 4%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러시아와 동구권도 수출회복과 폴란드 경제의 회복세에 힘입어 4.5%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러시아는 주요 수출품목인 원유 및 광물류의 가격안정에 힘입어 4.9%대의 높은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남미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그리고 베네주엘라와 우루과이 등의 금융 불안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어 다소 희망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성장률은 2.0%대에 그칠 전망이다.

(단위 : %)

	2001년		2002년		2003년	
	연간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연간
세계경제	2.2	2.7	2.9	3.1	3.0	
선진국	0.8	1.5	1.8	2.0	1.9	
미국	0.3	2.2	2.3	2.7	2.5	
일본	0.3	-0.3	1.2	0.4	0.8	
E U	1.6	0.8	1.2	1.6	1.4	
개도국	3.7	4.0	4.5	4.8	4.7	
중국	7.0	7.8	7.7	7.5	7.6	
인도	4.1	5.1	6.0	5.6	5.8	
동남아	2.7	3.9	4.2	4.4	4.3	
중남미	0.6	-0.6	1.7	2.3	2.0	
중동	1.5	2.0	2.2	2.8	2.5	
아프리카	3.5	3.1	3.8	4.2	4.0	
러·동구	5.0	3.9	4.2	4.8	4.5	

주 : 2001년 IMF기준(일본은 12.9 수정발표치 기준)임.
2002~2003년은 IMF, OECD 전망치를 참고로 한 LG 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

달러, 엔 약세기조 유지

달러는 이라크 전쟁과 디플레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달러화 강세를 억제하겠다'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당분간 강세를 보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엔화는 일본 정부가 펼치고 있는 엔저 유도정책에 따라 당분간 강세를 보이겠지만, 경기회복이 늦어짐에 따라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점차 약세 기조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엔·달러 평균 환율은 상반기 119엔에서 하반기 121엔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금리는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와 물가안정 기조에 힘입어 당분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와 달러의 금리는 상반기에 1.5%까지 떨어진 후 하반기에 완만한 상승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도 하반기 동반 회복할 듯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전환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당장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임박함에 따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기업의 투자심리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경제가 더 이상 급락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상반기 위험요소들이 제거되면 하반기부터 서서히 성장세를 보여 3.0%대 성장률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단위 : %)

	2002년			2003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엔/달러	129.4	121.5	125.4	119.0	121.0	120.0
달러/유로	0.90	0.99	0.95	1.02	1.02	1.02
LIBOR 달러	1.9	1.7	1.8	1.5	2.5	2.0

▲ 국제금리·환율 전망

이에 따라 우리 경제도 하반기부터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라크 전쟁에 따른 유가급등과 선진국권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 소비와 투자 등 내수부문의 위축,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제도적 변화 등이 변수로 작용할 듯하다.

출처 : LG경제연구원